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9. 5. 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ESS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 연기는 사실이 아니며 그간의
상반기 중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6월초로 앞당기기로 한 것임
(5.3일 조간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ESS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)

◇ “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”의 조사결과 발표 연기는 사실이
아님.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은 상반기 중 발표였으나 이번에
6월초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며, 5.2일 백브리핑에서도 3월 발표의
연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

◇ 5월 3일 조간의 다수 언론에 게재된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
발표가 연기되었다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□ 당초 3월로 예상되었던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발표를 5월에서
6월로 계속 연기하여 업계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불만 제기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ESS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연기는 사실이 아님

○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발표시점에 관하여, 산업부는 4월 국회
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때(4.4일) 처음으로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고
공식 언급하였으며,

○ 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’(5.2일
백브리핑)에서 발표 시기를 6월초로 앞당기고 안전성 강화방안과
생태계 육성방안도 함께 발표하기로 한 것임

□ 또한, 동 브리핑에서 ‘3월 발표 연기’ 질의에 대해 발표시점 연기가
아님을 분명히 밝혔음

○ ESS는 배터리, 전력변환장치, 보호·제어기 등으로 구성된 복합
시스템이고, 화재 사고현장이 21개에 달하며 수십여개 업체가
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3월까지 조사를 완료 할 수 없다는 점을
설명하였고,

< 유사 화재원인 조사기간 사례 >

- * 단일 제품인 “갤럭시 핸드폰”화재 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기간 : 5개월
- * 단일회사 “차량 (BMW)” 화재 사고 조사 위원회 조사기간 : 5개월

○ 정부가 3월에 결과발표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없음을 명확히
하였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 이귀현 과장(043-870-5410)
김준호 연구관(043-870-5415)